삼성전자, 2006 도하아시안게임 가전 제품 후원

삼성전자는 이번 도하 아시안게임의 주요 후원사(Prestige Partner)로서 영상 · 음향 가전, 생활 가전, 무선(Wireless)의 3개 영역을 단독으로 후원한다.

삼성전자는 TV, 비디오 카메라, DVD/VCR 콤보 등 A/V기기 3,549대, 휴대폰 2,772대, 냉장고, 세탁기, 전자레인지 등 생활가전제품 1,868대 등 총 8,189대에 달하는 제품을 도하 전역의 아시안게임 관련 시설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공급할 예정이다.

또한, 「삼성 MVP 어워드(Samsung MVP Award)」를 도하아시안게임에 출전한 우수 선수에서 시상한다.

아시안게임 폐막식 중 열리는 MVP Award 시상식은 저명한 심사위원단과 공인된 미디어 대상의 조사를 통해 출전 선수 중 한 명의 MVP와 네 명의 결선 진출자에게 상을 수여하게 된다.

1998년 방콕대회부터 시작된 삼성 MVP 어워드는 선수들의 스포츠정신과 도전정신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대회 기간 중 아스파이어 인도어 홀(Aspire Indoor Hall)과 메인 미디어 센터(Main Media Center, MMC) 내부에는 각각 디지털 갤러리와 삼성 라운지를 마련할 계획이다.

삼성 디지털 갤러리는 풀HD LCD TV, 4도어 독립냉각 '콰트로' 냉장고, 울트라에디션 휴대폰 등 세계 최첨단 기술 제품들을 통해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만날 수 있는 특색있는 전시장으로 마련될 예정이다. 삼성 라운지는 대회를 방문하는 언론인들을 대상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인터뷰 기회를 창출하는 공간으로 꾸며진다.

LG전자-한양대 산학협력 강화

LG전자가 산학협력 및 우수인재 확보를 위해 한양대학교와 협력을 강화한다.

LG전자는 10월 30일 한양대 산학기술관에서 DM(Digital Media)사업본부장 황운광 부사장과 한양대 김종량 총장이 참석한 가운데 산학협력 MOU를 체결하고, 'LG전자-한양대 R&D센터' 개소식을 가졌다.

이번 MOU체결을 통해 우수인력 양성 및 교류를 증진하고, 'LG전자-한양대 R&D센터'를 중심으로 공동 연구개발을 추진하는 등 상호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한양대 공학대학 내 50평 규모의 'LG전자-한양대 R&D 센터'를 마련, LG전자 DM사업본부 파견 연구인력, 한양대 산학장학생 대학원생, 주문형 석사 등이 참여해 텔레매틱스(Telematics), 멀티미디어 영상 압축 분야 등에 대한 연구개발을 진행하게 된다.

또한 'LG전자-한양대 산학협력 운영위원회'를 구성해 개발 프로젝트, 학위 파견, 산학 장학생, 주문형 학사과정 등 산학협력 운영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LG전자 DM 사업본부장 황운광 부사장은 "우수 대학과의 산학협력은 실무형 우수 인재 확보를 위해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이 공계 분야 우수대학인 한양대학교와 산학협력을 맺음으로써 향후 핵심기술 공동개발을 통한 성과는 물론 우수 인재 확보에 대한 기대가 크다" 고 강조했다.

팬택앤큐리텔 휴대폰, 일본에서 판매 순위 2위

팬택앤큐리텔은 일본 KDDI에 공급중인 휴대폰 'A1406 PT'가 출시 1개월여 만에 'KDDI-au' 제품 판매 순위에서 2위를 차지했다고 10월 31일 밝혔다. 'A1406PT'는 40~50대 중장년층과 노년층을 타깃으로

삼성전자 주요 뉴스 (www.sec.co.kr)

No.	제 목	일자
1	삼성전자, 전문대서 맞춤형 인재 육성한다	2006/11/08
2	삼성전자, 브라질에 와이브로 상용화 계약 체결	2006/11/08
3	삼성 모바일 와이맥스 서밋 2006 개최	2006/11/05
4	삼성전자-성균관대, 휴대폰학과 대학원 신설	2006/11/03
5	모스크바 패션쇼 무대서 빛난 삼성브랜드	2006/11/02
6	삼성전자 CIS GSBN PVI Potal에 metags 개발 납품	2006/11/01
7	삼성전자, 문화재청과 1문화재 1지킴이 협약식	2006/10/31
8	우크라이나에서 '울트라 에디션' 런칭 이벤트	2006/10/30
9	삼성전자 휴대폰, 덴마크서 돌풍	2006/10/26
10	삼성모니터, 美서 4년 연속 최우수 브랜드	2006/09/04

LG전자주요 뉴스 (www.lge.co.kr)

No.	제 목	일자
1	LG전자, '샤인 모멘트' 온라인 프로모션 진행	2006/11/05
2	LG전자 '샤인', 하반기 휴대폰 시장 강타	2006/11/02
3	LG전자가 XCANVAS의 새로운 펫 네임(Pet Name) 런칭	2006/11/02
4	LG전자-C&M, HD급 디지털 케이블 방송 개시	2006/11/02
5	LG전자, '지속가능성 보고서' 발간	2006/10/31
6	LG전자, 3분기 PDP패널 세계 판매 1위	2006/10/30
7	독일 슈나이더사와 휴대폰 카메라 렌즈 기술협력 체결	2006/10/25
8	PDP모듈 4대 글로벌 기지 구축 완료	2006/10/25
9	LG전자, 디스플레이 신기술 공모 시상식	2006/10/24
10	LG전자, 중동 아프리카에서 사랑의 무료 의료봉사활동	2006/10/19

'안전'과 '편리'에 초점을 맞춘 실용적 디자인과 기능이 돗보이는 게 특징이다. 현지 매장 직원이 'A1406PT'를 들어보이고 있다.

팬택앤큐리텔의 휴대폰이 일본에서 출시 한 달여만에 판매 순위에서 2위에 오르며 기염을 토했다.

팬택앤큐리텔은 31일 지난 9월부터 일본의 이동통신사업자 KDDI에 공급해온 휴대폰 'A1406PT'가 출시 1개월 여 만에 'KDDI-au'제품 판매순위에서 2위에 올랐다고 밝혔다.

이 제품은 40~50대 중장년층과 노년층을 타깃으로 '안전'과 '편리'에 초점을 맞춘 실용적 디자인과 기능이 돗보이는 게 특징이다. 작은 버튼을 조작하기 힘든 노년층을 위해 3개의 원터치키를 통한 단축다이얼 기능을 제공한다. 2.4인치 LCD를 내장하고 UI의 폰트와 키패드 숫자를 크게 구성했다.

삼성전기, "부품사업 글로벌 경쟁력 확보 주력"

삼성전기는 11월 1일 창립 33주년에 앞서 31일 수원사업장 사내체육관에서 다양한 기념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삼성전기 강호문 사장 및 임직원 800여명과 대외 인사들이 참석했으며, 특히 관계사, 협력사 등에서 보내는 화환 대신 삼성전기 1사 1촌 토고미 마을의 쌀을 기증받아 지역사회 내 불우 이웃에게 전달했다.

이 회사 강호문 사장은 이날 기념사를 통해 최근 수년간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의 사업구조 개편에 따른 임직원의 노고와 올해 수익성 개선, 신제품 출시 등 가시적인 성과를 치하했다.

또한 "향후 지속성장을 위해서 미래지향적 고수익 사업구조 구축 및 기술역량의 강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외부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해 글로벌 사업 경쟁력을 확보하자"고 당부했다.

이 회사는 10월부터 창립 33주년을 기념해 단축마라톤, 사업부별 체육대회 등 임직원 단결을 다지는 다채로운 기념행사를 개최해 왔으며 창립기념식 당일에는 꽃꽂이 사진 퀼트 등 사내 동호회 작품 전시 및 재능 있는 임직원들의 피아노, 마술 공연 등이 어우러진 성우문화제'를 성황리에 열었다.

또한 창립기념식에서는 올해로 2회를 맞는 1nside Edge 논문대상' 시상도 열렸다. 이번 논문대상에는 국내외에서 115편의 논문이 접수됐으며 이중 10편을 선정, 총 2500만원의 상금이 부여됐다.

LG이노텍, 초소형, 초슬림 카메라 모듈 2종 개발

LG이노텍은 슬림 휴대폰 시대를 주도할 초소형, 초슬림 카메라모듈 2종을 개발하고 내년부터 양산한다고 10월 29일 밝혔다.

이 회사가 개발에 성공한 제품은 4.35㎜ 두께의 초슬림 200만 화소 고정초점 카메라 모듈(사이즈 8×8×4.35㎜)과 5㎜두께의 초슬림 200만 화소 자동초점 카메라모듈(사이즈 8.5×8.5×5.0㎜)이다. 이 가운데 200만 화소 고정초점 카메라모듈은 4.35㎜의 벽을 돌파한 세계 첫 제품이며 자동초점 제품 역시 이 기능을 지원하는 제품 가운데 가장 두께가 얇다.

LG이노텍은 이번 제품에 초소형 비구면 렌즈, 보이스코일이동(VCM) 방식의 초절전·초소형 엑추에이터, 초슬림 패키지 기술 등을 적용, 카메라 폰의 모듈 두께를 줄이는데 성공했다.

LG이노텍측은 "이번 제품이 신뢰성 및 품질 승인까지 마쳤으며 내년 초부터는 휴대폰에 양산 적용될 예정" 이라며 "휴대폰용 카메라 모듈 매출이 내년을 기점으로 급신장할 것으로 기대한다" 고 밝혔다.

디보스, 대우일렉서비스와 A/S 계약

LCD TV 전문기업 디보스는 애프터서비스(A/S)부문의 역량 강화를 위해 대우일렉서비스와 협력관계를 체결한다고 10월 30일 밝혔다.

11월1일부터 시행되는 이번 서비스는 A/S, 제품의 배달과 설치, 반품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며, 이는 기존의 LCD TV와 IPTV(Diboss-Daum GO TV), 상업용 LCD TV에 모두 적용된다.

현재 대우일렉서비스는 하이마트, 한국코닥, CJ홈쇼핑, 스카이라이프 등 인지도 높은 기업들의 A/S를 대행하고 있으며, 이와 동일한 수준의 고급 A/S정책을 디보스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전국 66개 직영 서비스센터를 바탕으

로 전국 통합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전문 서비스교육을 이수한 2000여명의 '감동 엔지니어'를 보유하고 있다.

A/S 신청은 전국 어디서나 1588-6337번으로 기존과 동일하며, 디보스 제품을 구매한 모든 고객들은 이 번호를 통해 디보스의 업그레이드 된 고객서비스를 체험할 수 있다. A/S는 출장 서비스 시 24시간 이내 처리되며, 특히 고객이 서비스센터를 직접 방문 시에는 두 시간 내에 즉시 처리가 가능하다.

이레전자, 미 AAFES에 1250만달러 PDP TV 공급 완료

디지털 디스플레이 전문기업 이레전자산업은 미국의 AAFES에 1250만달러 규모의 PDP TV 공급을 완료했다고 11월 1일 밝혔다.

정문식 사장은 "단일규로는 최대였던 이번 공급에 대해 미국 AAFES사의 관계자도 품질 및 납기, 가격면에서 크게 만족하고 있고, 올해 마지막으로 예정된 11~12월 발주 및 2007년도 대규모 발주에 대해서도 유리한 위치를 선점했다"며 향후 대량수주에 대한 기대를 내비쳤다.

정사장은 이어 "미국쪽의 올해 수주물량은 조만간 확정될 예정이며, 특히, 관심모델이 42인치 급에서 46인치 및 50인치급 풀(Full) HD 모델로 이전하고 있어 판매 단가 부분에서도 유리하다"며 "특히 우리 회사에서 개발한 통합보드의 적용으로 원가경쟁력을 확보한 모델" 이라고 말했다.

이레전자는 해외부문에서 고정거래선의 확보 및 고수익 모델인 LCD 46인치, PDP 50인치의 마케팅을 강화하고, 내수부문에서 하이마트 등 가전전문점을 통한 매출증가가 예상되는 2007년도부터는 턴어라운드 할 것으로 기대했다.

아이디에스, 네오비트로에 50억투자

아이디에스는 전자부품용 정밀 유리제품 생산회사인 네오비트로에 약 50억원을 투자키로 했다고 10월 11일 공시했다. 아이디에스는 네오비트로가 발행한 전환사채 및 우선주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투자할 예정이다. 투자는 2008년까지 단계별로 진행된다. 전환사채가 보통주로 전환될 경우 아이디에스는 네오비트로 지분 88.75%를 가진 최대주주가 된다.

회사측은 신규사업인 CCFL용 글래스 튜브 생산에 진출해 사업다각화를 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아이디에스는 70억원을 투자, 경기도 용인시에 CCFL용 글래스 튜브 생산 공장을 건립할 예정이다.

가온미디어, 멀티룸 셋톱 아프리카에 수출

가온미디어는 하나의 셋톱박스로 복수의 TV 시청이 가능한 '멀티룸 셋톱박스' 12억원 어치를 나이지리아 방송사업자 트랜드디지털에 공급한다고 10월 25일 밝혔다.

가온미디어는 "남미 최대 케이블 방송사업자인 멀티카날과 최근 15억원 규모의 멀티룸 셋톱박스 공급계약을 체결한 데 이어 프리카에서도 계약을 성사시켜 수출 주문이 크게 늘어날 것" 이라고 기대했다.

삼성SDI, AM OLED 홈페이지 개설

삼성SDI가 능동형(AM)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전용 홈페이지(http://amoled.samsungsdi.com)를 개설했다. 삼성SDI가 특정 제품을 주제로 홈페이지를 별도로 마련한 것은 지난 2004년 8월 개설한 '빅슬림'에 이어 AM OLED가 두 번째다.

삼성SDI는 AM OLED 홈페이지를 통해 브랜드 가치를 널리 알리는 한편 AM OLED의 최첨단 · 최고급 디스플레이 이미지를 정착시킨다는 계획이다.

홈페이지에서 삼성SDI는 3차원(3D) 애니메이션을 활용, AM OLED의 장점인 얇은 두께와 자연스러운 색감, 우수한 시야각, 빠른 응답속도 등을 알기 쉽게 보여 주고 AM OLED 특징과 원리 등을 상세하게 제공한다.

대우일렉 채권단, 비디오콘과 MOU 체결

대우일렉트로닉스 채권단은 지난 10월 20일 우선협상대상자인 비디오콘 - RHJ인터내셔널 컨소시엄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10월 23일 밝혔다.

매각 가격은 7000억원으로 정했으나, 한 달간 본실사를 실시한 뒤 추후 조정키로 했다.

채권단 관계자는 "앞으로 한 달간 실사를 걸쳐 12월 중순께 본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라며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당시 제시한 매각가 7억달러(약 6700억원) 보다 약간 높은 7000억원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채권단과 비디오콘측은 본계약 체결시까지 가격 협상 한도와 우발채무로 인한 가격 조정가능폭을 각각 5%와 8%로 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져 추후 매각가 조정도 가능할 전망이다.

지난달 지난 9월 8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비디오콘측은 MOU체결에 앞서 과도한 매각가 인하를 요구해 한때 진통을 겪기도 했다.

인도 가전업체인 비디오콘은 대우일렉 인수

전에 미국계 사모펀드인 리플우드 일본 자회사인 RHJI와 컨소시엄을 이뤄 참여했다.

LS전선, 삼성중공업에서 선박용 특수전선 수주

LS전선은 삼성중공업이 발주한 500억원 규모의 선박용 전선을 수주하는데 성공했다고 10월 26일 밝혔다.

이번에 수주한 전선은 LNG선, 석유 시추선 등 특수한 선박에 들어가는 것으로 단일 수주로는 세계 최대다. LS전선은 이번 수주로 향후 3년간 안정적 매출과 이익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LS전선은 오는 2009년까지 3년간 삼성중공업에서 건조되는 특수선 25척에 선박용 전선을 공급하게 되며, 이 중 70%가 LNG선에 설치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주로 공급되는 LNG선박용 전선은 액체 상태의 천연 가스를 운반하기 때문에 운항중의 폭발이나 누출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내열 특성을 갖춘 것이 특징이다.

한편, 이번 수주와는 별도로 LS전선과 삼성중공업은 세계적 기준으로 채택하고 있는 일본공업규격(JIS)의 기존 범용전선을 대체할 수 있는 한국형 선박용 전선을 공동으로 개발해 오는 11월초 창원에서 열리는 국제조선해양산업전시회에서 공식 발표할 방침이다.

에이스안테나, DMB · HD라디오 사업 담당 법인 설립

에이스테크놀로지와 에이스안테나는 디지털 컨버전스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공동으로 자본을 투자, 에이스딕시오를 설립했다고 10월 17일 밝혔다.

25억원의 초기 자본금과 30여명의 인력으로 설립된 에이스딕시오는 일본방식 지상파 DMB인 ISDB-T (Integrated Service Digital Broadcasting)와 HD라디오 모듈과 완제품 등을 생산, 해외에 판매하게 된다. 지그비(ZigBee) 및 초광대역 통신(UWB) 모듈 등의 사업도 추후에 진행할 예정이다. 에이스딕시오의 대표이사는 에이스테크놀로지 대표이사 출신의 최진배 사장이 임명됐다.

최진배 에이스딕시오 사장은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첨단 컨버전스 디지털기기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기에 이 분야의 기술 개발과 마케팅을 집중할 계획"이라며 "특히 R&D 인력의 육성에 힘써 차별화 된 기술을 선행개발하고 신제품 개발에 전력 투구한다면 글로벌 스탠다드 디지털 전문기업으로의 발전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고덴시, 3분기 41억원의 영업이익

한국고덴시는 지난 3분기 분기 매출 사상 최대실적인 418억원의 매출과 전년 동기 대비 77% 증가한 41억원의 영업이익을 올렸다고 10월 23일 밝혔다.

한국고덴시는 프린터, 복합기 시장 확대에 따라 페이퍼 검출 센서의 매출 확대, 디지털카메라 및 휴대폰 부품 매출이 확대되면서 실적이 크게 개선됐다고 밝혔다. 또 매출 증가에 따른 고정비 절감 및 해외 생산기지가 본궤도에 오르면서 매출과 순익이 지속적으로 개선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LG 엔시스 컨소시엄, KJCCS 사업수주

LG엔시스-LG CNS 컨소시엄은 163억원 규모의 합동지휘통제(KJCCS) 기반 체계 구축 사업 입찰에 참여, 삼성SDS와 KT를 따돌리고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고 10월 26일 밝혔다.

LG엔시스 한 관계자는 "삼성SDS, KT 등 3개 IT서비스 업체와 경쟁했으나 자사가 높은 기술점수를 받아 경쟁업체의 막판 추격을 따돌렸다"고 말했다. 특히 인프라 전반의 보안을 위해 독자 개발한 네트워크 보안 솔루션 '세이프존IPS'를 제안하는 등 타 업체와 기술 측면에서 차별화된 접근을 시도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LG엔시스 컨소시엄은 내달부터 2007년 2월말까지 4개월간 사업을 수행한다. LG엔시스는 이에 앞서 지난 1, 2차 KJCCS 기반체계 구축사업을 진행하는 등 군 기반체계 구축 분야에서 강세를 보이고 있다.

3대 전장관리 정보체계 중 하나인 KJCCS 기반체계 구축사업은 현재 운용중인 지휘소 자동화체계(CPAS)의 성능을 개량, 전시 또는 평시작전의 전 과정을 첨단 · 자동화하는 사업이다.

대우전자부품, 엠케이전자 지분인수 완료

대우전자부품은 주요 주주들과 함께 코스닥 등록법인 엠케이전자의 지분 인수를 최종 완료했다고 10월 31일 밝혔다.

이 회사는 자사의 최대주주와 연합해 엠케이전자의 최대주주였던 에프지텐사모투자 지분중 23.10%(2,98만752주)를 총 304억원에 장외매수를 통해 취득, 완료했다. 엠케이전자 인수를 위해 대우전자부품은 최근 발행한 전환사채와 유상증자를 통해 마련한 자금 중 100억원을 투자했다.

이번에 인수된 엠케이전자는 반도체 패키지용 본딩와이어를 생산하는 반도체 부품업체로 지난해 기준 매출 2248억원에 96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한 바 있으며, 국내 시장 점유율 1위에 세계 시장점유율 4위를 차지하고 있는 업체이다. 또한, 올 상반기에는 매출 1530억원에 영업이익 55억원이라는 양호한 실적을 올렸다.

한편, 대우전자부품은 최근 한국전자부품연구원이 세계 최초로 개발, 상용화한 무선통신 원천기술인 바이너리 CDMA' 및 AMS(자동차미디어서버플랫폼설계기술)등에 대한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하는 등 신규사업으로 모바일용 핵심 칩 사업분야 진출을 추진하고 있어서 반도체 제조 관련 핵심 원천기술을 갖고 있는 엠케이전자를 인수한 것이 상당한 시너지를 가질 것으로 내다봤다.